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

김 철 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95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구라파의 진보적량만주의문학을 옳바로 리해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다른 나라 문학작품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연구보급하는것이 가지는 목적과 중요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0(1961)년 6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에서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번역출판하여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것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더 잘 교양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 문학작품들가운데서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작품, 착취사회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폭로한 작품과 같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읽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들가운데는 소설 《어머니》, 《철의 흐름》, 《고난의 길》, 《등에》를 비롯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과 새 사회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아큐정전》, 《축복》, 《페 미제라블》과 같은 작품들 그리고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비판한 소설 《돛비와 아들》, 《부활》, 《죽은 녀》와 같은 진보적인 작품들이 있다.

고리끼의 장편소설 《어머니》는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원칙을 구현한 작품으로서 로씨야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사회주의혁명으로 고무추동하고 로씨야와 유럽의 혁명적인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한것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비교적 원만하게 보여주었으며 당의 령도밑에 벌어지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정당하고 깊이있게 반영하는 혁명적인 주제를 취급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옳게 구현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인 빠웨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주인공, 혁명가의 생동한 전형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당시 로씨야에서 볼셰비크당의 지도밑에 장성강화되고있던 로동운동실태와 그속에서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적의식성장과

정을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셰라피모비츠의 장편소설 《철의 흐름》은 로씨야에서 공민전쟁초기인 1918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쏘련의 남부 구반지방에서 붉은 군대의 한 부대가 반혁명백과도당의 포위를 뚫고 붉은 군대의 주력과 연합하기 위하여 벌린 어려운 행군과 이 과정에서의 대중의 각성과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인 꼬쥬흐의 지도밑에 처음에 무규률적이었던 농민대중을 기본으로 하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성원들이 어려운 행군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어 자각적인 대오로, 《철의 흐름》으로 전변되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시 로씨야에서 일어났던 공민전쟁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 과정을 통하여 쏘베트정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로씨야로농대중의 사상정신상태를 진실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착취사회에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아큐정전》, 《축복》, 《레 미제라블》과 같은 작품들과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비판한 소설 《돛비와 아들》, 《부활》, 《죽은 녀》과 같은 작품들은 당시 자본주의사회와 봉건적농노전제제도의 불합리한 착취사회현실을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넓고 부패한 반동적인 착취계급의 반인민성을 폭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높여나가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의 우수한 문학작품들은 당대시기의 력사와 문화,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과 미학정서도 더욱 풍부히 하여 주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문학유산을 출판보급하고 연구하는것은 또한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은 민족적특성을 가지면서도 해당 시대 인류의 진보적문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반영하고있다.

다른 나라의것을 연구하는 목적이 조선혁명을 더 잘 수행하자는데 있는것만큼 다른 나라의것가운데서 좋은것은 연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여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을 창조발전시키고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른 나라 문학작품들에 대한 연구목적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외국문학연구를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나갈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분석평가하고 리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나라 작품을 분석평가하고 리용하는데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에서 대하고 연구하여야 그것이 사회주의문학의 창조발전과 사람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에 리롭게 리용될수 있다. 세계의 진보적문학유산은 지나간 력사적시기들에 각이한 나라들에서 나왔으며 그 대부분이 착취사회에서 창조된것이므로 매개 유산에는 일정한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을뿐아니라

이러저러한 부족점과 불건전한 요소,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인민의 비위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고대나 중세에 나온 많은 문학작품은 본래 인민들의 구전창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들의 생활과 념원을 반영하고있지만 그것을 기록정리한 사람들이 지배계급출신의 문인이 다보니 봉건적충군사상이나 종교교리와 같은 그릇된 사상을 선전하고 지배계급의 취미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변형윤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거의 많은 진보적인 작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을 모르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바라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회에 대한 뚜렷한 표상도 가지지 못하고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상적인 화폭을 그리거나 사람들에게 도덕적자기완성을 호소하는데로 나갔으며 때로는 인류의 전도를 압담하게 보면서 비판주의를 설교하기도 하였다고 하시면서 문예부흥기와 계몽기 그리고 자본주의시기에 나온 진보적문학작품에는 거의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작가의 초계급적인 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작품에는 부르쵸아지들을 동정하거나 찬양하는 경향과 염세주의 경향, 자연주의경향과 같은것도 들어있으며 인간관계에서는 삼각련애관계가 많이 설정되어있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1(1962)년 2월 9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에서 계몽주의문학의 대표적작품인 영국의 다니엘 디포우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긍정면은 계몽주의사상과 운동의 진보적측면이 반영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소설의 사건무대가 당대 사회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으로 설정되어있고 주인공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인물로 묘사된것은 다 계몽주의사상의 긍정적측면을 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제한성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에서 로빈슨의 로동생활은 개인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립장에서 묘사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로빈슨의 로동생활은 봉건사회나 자본주의사회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하는것이 아닐뿐아니라 자기자신과 전체 인민을 위한 공동로동에 참가하여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 사회주의사회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도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에서는 또한 로동과 자연개조에 대한 비현실적인 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작가가 소설에서 누구나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에 열심히 참가하면 풍부한 재부를 생산할수 있고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면서 사회개조문제는 외면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작가가 무인도에서의 로빈슨의 로동생활을 찬양하는 립장에서 묘사하면서 사회개조문제를 외면한것은 인간의 《자연적상태》와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내세우던 계몽주의자들의 립장을 표현한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분야의 서적과 함께 문

학서적을 많이 읽어 지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문학작품을 흥미거리로 보거나 낱림식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학작품을 읽은 다음에는 그것을 당정책과 이미 배운 전공지식에 기초하여 분석평가해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2(1963)년 8월 2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구라파의 진보적량만주의문학을 옳바로 리해할데 대하여》에서 프랑스의 진보적량만주의작가인 듀마의 장편소설《몽떼 그리스토포백작》의 진보성과 제한성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유럽의 진보적량만주의의 긍정적측면과 제한성은 장편소설《몽떼 그리스토포백작》과《레 미제라블》만 분석하여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장편소설《몽떼 그리스토포백작》은 자본주의사회가 빚어내는 여러가지 악덕을 깊이있게 들추어내고 비판한 작품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인공이 당하는 불행과 기구한 운명 그리고 여러 부정인물들이 감행하는 악행과 그들의 출세과정은 사회악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잘 드러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소설은 착취사회의 악덕에 대치되는 인도주의, 정의감, 의리 같은 인간의 선량한 품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용감성, 인내력을 높이 찬양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편소설《몽떼 그리스토포백작》의 기본제한성은 착취사회의 악덕을 개별적인 악한 사람들의 기질과 소행으로 보여주면서 착취사회제도자체를 비판하지 못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작품에서 갈등은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한자와 악한자사이의 도덕적인 충돌에 기초하여 설정되고있으며 주인공의 활동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순수 개인복수과정으로 그려지고있다고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소설의 사건과 인물관계가 흥미본위로 엮여지고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외국문학을 분석평가하는데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몸소 세계의 이름있는 작품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주심으로써 외국문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문학작품을 철저히 배격하며 그것이 절대로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0(1961)년 6월 28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하신 담화《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에서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조아반동사상과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반동문예조류의 침습을 막는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문학작품을 철저히 배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부르조아반동문예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하는것이라고 밝혀

주시였다.

당시 자연주의의 추종자들은 사실주의적전형화를 반대하면서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구실밑에 생활에서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인 현상만을 기계적으로 복사하고 라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외곡하고있었다.

또한 그들은 인간사회를 자연계처럼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인간증오사상과 침략사상을 비호하며 썩어빠진 부르쥬아반동문화와 부르쥬아생활양식을 퍼뜨리는데 복무하고있었다.

형식주의의 추종자들도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무시하고 《형식미》만 추구하여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문학예술을 현실과 갈라놓고 문학예술에 현실이 정당하게 반영할수 없게 하였으며 결국 형식주의문예조류는 자본주의현실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문학작품을 철저히 배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정주의문예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 침습을 철저히 막아내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당시 수정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인하면서 《전인류적문학》을 만들것을 제창하고있었으며 《영원한 주제》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랑, 모성애 같은것을 초계급적인 립장에서 취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정주의자들은 이런 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돌림으로써 사회에 자본주의적요소와 부르쥬아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적아간의 계급적선을 모호하게 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흐리게 하고있다고 그리고 문학예술을 통하여 전쟁공포증과 부르쥬아평화주의를 퍼뜨려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체시키고있으며 부르쥬아자유주의와 리기주의를 고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기 싫어하고 조직생활을 싫어하며 안일부화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외국문학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지난 시기 외국문학연구분야에서 나타나고있던 편향들과 결합들을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에서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외국문학연구의 사상리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문학작품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평가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세계문학작품분석, 주체적립장